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9~10장. 전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권속으로 태어나고 또 이생에서 특별한 축복과 책임을 받도록 예임(선택)되었다. 이러한 축복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의 자발성에 달려 있다. (40~45분)**

여러분이 특별한 상을 받을 사람 한 명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것이다. (1) 제비 뽑기, (2) 투표, (3) 가장 뛰어난 실적에 따른 선정.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서 3장 23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예임이 되었는지를 찾아 적어본다. (답: )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아브라함이 무작위로, 투표로, 또는 그의 충실함 가운데 어떤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충실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엘마서 13장 3~4절**을 읽는다.

**요점 1. 전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권속으로 태어나고 또 이 생에서 특별한 축복과 책임을 받도록 예임 되었다.**

**요점 2. 예임 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따라야만 한다.**

**요점 3. 이방인들(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위 요점들 가운데 두 가지는 이 부분의 가르침을 위한 제언에서 다루어졌다. 세 번째 요점은 로마서 11장 11~22절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제언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위 첫 번째 요점을 읽는다. **로마서 9장 1~5절**을 읽고 양자, 영광, 성약들, 약속이라고 공책에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4절에 따르면, 누구에게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었는가?
- 그들이 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의 성약과 약속을 받도록 예임 되었다. **로마서 9~11장에 대한 소개에 나와 있는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말씀(다음 쪽)을 읽는다. 로마서 9장 9~14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6절 참조; 창세기 32:28 또한 참조)
- 야곱이 어떻게 전세의 충실함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예가 되었는가?
- 이것이 정당하다고 경전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가르치는가?
- 바울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4절 참조)

**해롤드 비 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후에 이스라엘이라 불리우게 된 야곱의 혈족으로 태어난 자들과 이스라엘의 자녀로 알려진 그의 후손은 이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우수한 혈족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보상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임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전세의 영계에서 살았던 생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의심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 인간의 지상에서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의 생활에서 받은 것은, 곧 이곳에 오기 전 우리가 행한 공적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믿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해롤드 비 리, Conference Report, 1973년 10월, 7~8쪽; 성도의 빛, 1974년 6월호, 34쪽)

**좌측에 있는 두 번째 요점을 읽는다. 로마서 9장 7절과 조셉 스미스 역에서 같은 구절을 읽은 뒤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왜 그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하지 않았는가?
- 바울은 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가?
- 이스라엘 권속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왜 그 사람의 해의 영광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가?

**교리와 성약 64편 35~36절**을 읽고 또 배반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본다. **전세에서의 충실함, 예임된 약속, 또는 특정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여 주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또는 다른 이들에 대해 우월함을 느끼도록 특정한 축복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

많은 성구가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은 추가로 다음 몇 가지 성구를 공부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21:34;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3:34~36; 요한복음 8:39; 니파이후서 30:1~2 참조**) 또한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있는 “생각할 점” (339~341쪽)을 읽는 것을 고려한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로마서 10:1) 하기 위해 이 교리를 가르쳤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권속에 속해 있으며 또한 성약의 백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고 기대하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교리와 성약 82:10 참조)** 여러분이 지닌 책임과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10장 1~3절과 9~18절**을 읽는다.

시간이 허락하면, 여러분은 “애통하는 이스라엘”(찬송가, 10장)을 부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찬송가의 가사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배울 수 있는가?
-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로마서 9~10장에 있는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축복이 될 수 있는가?
-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결과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전과 다르게 할 것인가?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소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상에 오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았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우리 각자에게 그분처럼 되는 권세와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곧 영생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살았다. 상속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과 속성을 받았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이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속성의 일부를 받았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행복의 추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이해 [1993년], 70쪽)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모든 영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재능 또는 능력은 영성이란 재능이다. 이 재능을 얻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권속의 일원으로 지상에 오기 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세대에 걸쳐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도록 예임되었다. 이 예임은 택함이다. ... 비록 모든 인류가 순종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좀 더 쉽다. 따라서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알며 세상에서 나는 여러 다른 음성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개념이다.” (신앙개조의 새로운 증인, 512~513쪽)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은 택함 또는 예임의 교리를 가르쳤다. 바울의 편지를 읽은 이들은 이미 전세가 존재하였다는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바울은 예임의 교리가 결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권속으로 덧붙여지고 또 복음의 축복과 약속에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전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권속으로 태어나고 또 이 생에서 특별한 축복과 책임을 받도록 예임(선택)되었다.(로마서 9:1~5, 11, 23; 11:2, 5 참조; 또한 예레미야 1:5; 에베소서 1:3~5 참조)

- 이스라엘의 권속이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별 가치가 없다.(로마서 9:31~33; 10:1~4, 16, 21; 11:1~10, 25 참조)

- 스스로를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증명하고 또 주님의 택하신 자녀가 된 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다.(로마서 9:6~8, 15, 24~26, 30; 10:5~13, 17~20; 11:1~5, 17~28 참조; 또한 니파이후서 30:2 참조)

-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권속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복음과 그에 따른 축복을 이방인과 이방인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 또한 복음의 축복을 잃게 될 것이다.(로마서 10:12~13, 20; 11:11~13, 17~22 참조; 또한 야곱서 5:3, 7, 9, 17 참조)